

# 고 생산비 시대를 극복하는 양돈인의 자세



최희태 부회장  
(사)대한양돈협회

만성 소모성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료 가격의 인상과 생산비 상승, 가축분뇨 해양배출의 전면 중단 등 수 많은 난제가 놓여 있는 가운데 우리 양돈산업은 FTA 시장개방으로 인해 향후 몇 년 안에 세계적인 양돈강국과 무관세의 무한경쟁에 돌입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 생산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받고 있다.

## FTA 시장 개방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압박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 협상에서 돼지고기 개방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EU는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내세워 미국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양허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양돈협회는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민본)와 연대하여 FTA 협상기간에 맞춰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한·EU FTA가 양돈산업을 말살하고 우리 농업을 붕괴시킬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과 해상운임비의 폭등으로 사료가격이 최근 2~3개월 간격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약 6%의 사료가격이 오른 뒤 2월, 5월 그리고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약 30% 가량의 사료가격이 인상되었다. 더욱이 바이오 에탄올의 수요확대로 인한 사료곡물 가격의 상승세는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양돈 농가를 압박하고 있다.

## 낮은 생산성의 벽 넘어서야

2007년 11월 현재 우리 양돈산업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속에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양돈농가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에 빠져 있거나 비관적, 부정적 전망보다는 우리 양돈산업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 자세로 난관을 극복하

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생산성인 MSY 13~14두 수준을 극복해야만 한다. MSY 20두가 넘는 FTA 양돈 경쟁국과 비교할 때 부끄러운 성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외국 양돈환경과 비교할 때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에 제약이 있지만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 아니다.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성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양돈 농가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현재 낮은 생산성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양돈산업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FTA 경쟁국과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양돈농가들 스스로가 생산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체질 변화가 시급하다. 특히나 고 생산비 시대에서는 더욱 생산성 향상이 요구된다.

### 신선한 국산 돼지고기 강조해야

또한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개방화 시대를 맞아 물밀 듯이 들어오는 값싼 수입 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돼지고기의 생산과 함께 유통 경쟁력 향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결정 시스템 정착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산 돼지고기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수입 돼지고기와의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우리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책이다. 우리 돼지고기는 신선함과 안전성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신선함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고품질로 승부하면 값싼 수입 돼지고기의 홍수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저력은 충분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에도 더 많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양돈협회가 돼지고기의 둔갑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믿을 수 있는 국산 돼지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이와 관련하여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생산이력제의 도입 역시 시급하다.

### 한 단계 도약하는 양돈산업 기대

우리 양돈산업이 이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책임이 전적으로 양돈농가들에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MSY 20두 이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등 여건 조성이 산업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축산관련 예산 중 양돈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가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근의 양돈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고(高)생산비 구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양돈농가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 농가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충분히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앞으로 양돈농가들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양돈산업의 위기는 어느 때라도 올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현 상황을 이겨내고, 한 단계 도약하는 우리 양돈산업을 기대한다. **양동**